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에 이어서

아브라함계의 또 다른 종교 전통인
이슬람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슬람은 제가 '순종과 예배의 종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 혹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은
보통 저희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Christianity (크리스챤너티)
Confucianism(컨퓨셔니즘)처럼

그 종교 외부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종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창시자의 이름을 따거나
창시자의 중요한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깥에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면

이슬람교는 스스로 이름을 붙인 세계적
종교 중에서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작은 종교의 흐름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종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큰 세계적인 종교의 경우에는

창시자가 혹은 창시자의 가르침들을
받아서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특정한 종교인에
소속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6~7세기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하면 저희가 신의 이름,

'알라'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모두가
아브라함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유일신론교 특히나
'하나의 신만이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체계에 의해서
성립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특징적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호메트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기억했다가

적은 경전을 꾸란이라고 부르는데

꾸란이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고치는 게 예컨대 허락돼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한글로 번역되거나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꾸란 자체의 원천적인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평화의 종교이지만
예배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무슬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두 가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요즘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와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다가도,
하루 생활을 진행하다가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예배의 종교라고 부를 만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메카에 '카바'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돌이,

검정 돌이 있는데

그게 우주에서 왔다고 하고
신에서 내려왔다고 일컬어지는 돌인데

이 메카라고 하는 곳에 이슬람 교인,

무슬림이라고 하면 평생에 반드시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메카로 모이고 거기에서 깔리거나 해서

사고 난다는 기사가
몇 년 단위로 꼭 나오는 이유가

이슬람교, 무슬림 하면 떠오르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죠.

그리고 또 무슬림 혹은 이슬람의
성립 당시부터 사실 이슬람교는

이슬람은 정치적 투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애초에 다신교적인
그리고 개별 사막의 유목민족과

결부된 신앙체계들을 가진 민족들 간의
정치적 투쟁이라든지 갈등이 심했는데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면서

이 투쟁이라든지 갈등들이
더욱더 격화되면서

사실은 이슬람교가 성립되는 역사는

예컨대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과정과 사뭇 다르게,

사실은 아닙니다만 '칼이나 꾸란이나'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하고

이슬람이 선교 되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뤄졌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이슬람과 정치적 관계,
정치하고 관계,

그 종교와 정치의 관계겠습시다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특징 자체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

이슬람에서는 대단히
특징적인 모습으로

종교의 성립 초기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꾸란을 받아 적은 예언자입니다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종교처럼 소위
유대교, 혹은 예수 전까지,

무함마드 이전까지 예수에 이르는
소위 선지자와 예언자들 25명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전통의 예언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꾸란을 받아들인
마지막 예언자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 역시도 그 신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혹은 발견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료인들에게 전파한 예언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역시도
인간 예언자일 따름이지

마치 기독교에서 주장하듯이

신의 아들이나 혹은 신이라고
주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죠.

동시에 유일신론이지만

그 신, 알라를 어떤 방식으로든
형상화 하거나 의인화,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도 거부하고,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것어요.

그다음에 이름을 함부로
논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고

또 동시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슬람 성전에는

소위 아라베스크와 같은

아주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무늬로 꾸미는 것은 있어도

신을 형상화하는 것들은 아주 배격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아주 오랜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처럼

우리가 트리니티(Trinity),
삼위일체론과 같은 가르침은

신을 3개로 나눈다고
이슬람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하지 않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일신론이지만
그 유일신론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내부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신앙을 지탱하는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알라를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됐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신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헌금하거나 보시하는 것,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단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라고 부르는
메카로 1년에 한 번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성지로
순례를 가야 되는 것,

이것들이 소위 이슬람이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의 5가지 기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슬람 혹은
무슬림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

빼놓지 않고 반드시 접하게 되는 게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의 가장 거대한
두 분파의 갈등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는

신도가 **90%** 정도가 수니파이고
10% 정도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이
수피즘이라고 하는

이슬람 내에 신비주의적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소수라서 별도로 치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갈등은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도자,

무함마드가 초대 칼리프인 것이고

그 4대 칼리프인
'이븐 아비 탈라브'라고 하는 이 사람의

권위를 놓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성스러운 혈통을 칼리프가,

칼리프는 그 성스러운 혈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니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4대째 칼리프의 후계자를 놓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 같은 것들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동의 여러 나라로 치면
수니파가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고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많은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같은 나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대목에서
이슬람의 독특한 특성은

기독교 국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교가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세속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각 분야가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치면

이게 참 특이하게도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을 신앙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세속화 즉 다시 말하면
종교와 종교가 아닌

사회 다른 영역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아직도 서구 사회라든지

비이슬람권 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가

하나의 공동의 커다란
묶음으로 이어져서

서구식의 세속화하는 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방송들을 통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차도르와 같은
여성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슬람은 전통적인 종교문화를

여전히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수니와 시아파와 같은
갈등 외에도 이슬람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또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가

현대사회에서 이슬람이 다른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계 종교 전통들은
소위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세속화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면

특이하게도 이슬람권,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정치라든지 문화 영역에 여전히
종교의 영향이 아주 강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개, 정치, 문화, 종교가

한 묶음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문명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터키처럼 세속화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

많이 진전된 사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적 세계관이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교육과 같은
사회 전반에 아직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의 발전
혹은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같은

현대적 변화에 마주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근본적인 원리를 회복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 흐름이 등장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또 **Islamic State**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라고 부르는

이슬람 국가 역시도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를 통해서

서구사회와의 갈등 혹은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갈등들을 종교적 교리의 회복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종교적 움직임들이

다른 국가들의 혹은
다른 종교권, 문화권들에 비해서

아직 여전히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종교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향후에 이슬람 국가들

혹은 무슬림 수가 계속
늘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종교로는 물론 기독교가
가톨릭 따로 개신교 따로 분리하면

이슬람이 가장 신도 수가 많습니다.

만약 기독교 내부 전통을
다 합하게 되면 기독교가 더 많지만

단일종파로는 이슬람이 제일 많은데

앞으로 향후 미래의 시대에는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신도 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무슬림의 수가 전 세계
종교의 교파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유대교, 기독교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독특하게 이슬람은
스스로가 이름 붙인 평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인
유일한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 외에도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혹은 역사와 같은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편견 없이 이슬람을
바라볼 필요가 크다고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힌두교,
동양 종교 전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 종교 전통도 아닌

동서양의 가운데서 대단히
독특한 종교성을 구현한

힌두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